

성시화

사랑의 도시, 평화 도피성의 꿈



제네바 레만호수



스위스 유엔사무국

오래전 19세기, 영국에서 어떤 늙은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행동이 어설프는지 그만 백주 대낮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맞아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도 접수되어 곧 경찰관들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초보 강도는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오게 되고, 군중들은 그 사람을 향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소녀가 나서면서 그 늙은 강도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경찰서까지 가 드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늙은 강도는 안정을 되찾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구나.”

이 강도의 마음을 열어준 소녀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연말 자선단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W.Booth, 1829-1912)의 부인이 되는 캐더린 부스(Catherine Booth)였습니다. 캐더린 부스는 남편과 함께 「구세군」 빈민선교운동을 하면서 미혼모시설, 도시빈민을 위한 급식시설, 감옥전도, 여성보호소 등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 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상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저는 춘천이 이러한 “사랑의 도시, 공평의 도시, 평화 도피성”이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좌우대립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평화시민의 도시, 절대주님의 도시를 꿈꾸어 봅니다.

1972년 여름, 춘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춘천성시화운동은 자연스럽게 스위스 제네바를 자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제 1의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국제도시 제네바처럼, 호반의 도시 춘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위스와 인구 18만 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 제네바시의 가장 중요한 위상은 중립국, 평화도시입니다. 오물과 건달들로 가득한 스위스 제네바가 존 칼빈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수고로 100년 내에 아름다운 호수도시, 평화도시, 피난처의 중립도시로 바뀌었던 것처럼 춘천도 사랑의 도시, 평화도시, 성경의 도피성의 도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도피성은 피치 못하게 사람을 해한 사람들이 피신 할 수 있는 곳으로서 6도시가 선정되었는데, 대표적 도시가 세겜과 헤브론이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헤브론은 수도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인근 도시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하였으며,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춘천은 척박한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소양강을 중심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개전 초기, 남과 북이 많은 피를 흘린 지역입니다. 춘천대첩으로 춘천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시 도시를 점령한 인민군들의 복수로 주민들의 대량학살과 피의 숙청이 몰아친 곳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담은 춘천이 사랑의 중립지역으로서 사랑의 도시, 평화도시, 도피성 도시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글. 최상도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사암교회)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

제공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 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출산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 교회 30개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이 주최하고 한교총 사회정책 위원회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층 프레스클럽에서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한교총 상임회장)는 “우리나라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년 내에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85개나 된다. 심각한 위기 중후가 아닐 수 없다.”며 “한국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학계 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새에덴교회)는 개회사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민족의 존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존중 및 결혼과 육아의 문제를 위해 정부 및 사회단체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수원중앙침례교회)은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 낙태 예방, 자살예방, 동성애 치유와 회복과 함께 결혼 장려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은성호 국장은 김상희 부위원장의 축하 대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는 올해부터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중조부 때부터 6대 신앙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출산율 0.98퍼센트라는 숫자의 의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일은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 협력해야 하는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일이지 좋은 방안들의 논의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변재운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젊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조홍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오다가 다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 중 하나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 성과로는 ▶아동의료비 제로화와 전계층 아동수당 지급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등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일생활균형 여건 개선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과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성평등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향후 5년 간 3만5천호 공급)주거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 생활 기반 강화 등을 들었다. 향후 과제로는, 국민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여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면서 입양가족 양육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와 사교육 경감대책, 일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청년 주거지 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

급 등이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수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당진동일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동일교회에서 실시해온 방과후수업(비저너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 인근 7개 초등학교 학생의 12.3퍼센트인 240명이 수업에 참여해 전인적 교육을 통한 국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해오고 있다. 보육에 그치지 않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당진시는 2017년 합계 출산율 1.65명이었다. 3명의 아이를 둔 가정은 최소 9곳의 학원을 보내야 한다. 그만큼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주도성장’이 필요하며, 교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해야 한다. 만일 1000개의 교회가 교회의 규모에 따라 5학급 100명, 10학급 200명, 15학급 이상 22년까지 20만 명, 24년까지 30만 명을 돌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의 10퍼센트 이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출산과 보육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는 캐나다의 육아보조금 제도와 빈집세 신설, 이민정책, 선교돌봄정책 개발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캐나다는 2016년 출산율이 1.60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다. 이는 과거 2000년 최저(1.5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인구 보충 출생율(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율)인 2.1명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과 함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이민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인구 성장의 2/3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통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절벽의 해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축적된 경험을 참고로 출산율과 노동력 등을 참고한 바림직한 이민정책이 수립되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출산 요인은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민관(民官)협력을 해야 한다. 한국 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은 지난해 2월 28일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전용태 장로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한국 기독교 출산운동을 협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남성시화운동본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와 김종식 목포시장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 다자녀 갖기 서약 및 행복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인천, 태백 등 전국 시군 단위로 기독교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자살 예방, 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해에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낙태를 예방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교회가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했으면 한다.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 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롯한 출산과 보육(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6만 교회 중 20 퍼센트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다. 그 교회들

중 1만 교회가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회 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출산보육의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도 했다. 김 목사는 ▶국가기념일로 ‘생명존중의 날’ 제정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 출산이 대중교통, 물품 구입,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 도입 ▶신생아에게 대통령 축하편지와 육아용품 선물 ▶아동수당 지원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지원 ▶프랑스 처럼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 ▶스웨덴처럼 아동간병휴거 및 급여 지급 ▶사교육비 경감정책 ▶전국 주요 도시 거점 교회에 베이박스 설치 등을 통한 버려지는 신생아 돌봄 등을 제안했다.

정리: 이은정 사무국장

사설

출산장려(저출산)와 교회의 역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언젠가 정부 정책으로 출산을 제한하기 시작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출산율이 낮다고 통계를 제시하며, 아이 낳기를 권장하느라 안간 힘을 쏟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일이 정부와 국가의 정치와 정책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인가? 다음세대를 외치고, 여러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들은 교회의 존립과 무관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출산장려에 관한 관심도 교회의 미래와 깊은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국가에서 쏟아 붓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결과는 큰 기대를 못 미친다는 것이다. 영국의 인구학자의 قول만박사는 2006년 한국을 지구에서 소멸할 국가 1호로 꼽기도 하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30년 후 한국이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을 추구할 때 가장 최선의 답은 성경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구호는 아니지 않을까? 성경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을 접근해 보자. 출산장려와 교회부흥, 교회성장을 함께 포괄적 수용과, 거시

적인 전략으로 다루어 봐야할 것이다.

첫째로 출산장려문제가 정부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본다면 성경해석과 성경적 가치관의 부재에서 만연된 삶의 방식이 주도해온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위임명령과 통치명령, 청지기적 사명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 인생관을 정립하지 않은 원인이다. 성장하는 세대와 기성세대를 위한 삶의 대원칙과 정체성의 확립을 우리는 사회와 문화 시대의 흐름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관찰해 보면 교회 다니는 모양과 삶의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 예로 영유아기 엄마 돌봄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대책이다. 아이를 둔 엄마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나눠가질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제공하므로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꿈과 자녀출산의 고민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아이들에게 묶여 자유롭게 목욕탕을 다녀오고, 공과금 납부를 위해 은

행을 가야 할 때, 숨막히는 일상에서 잠시의 휴식과 쉼을 위한 시간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회의 엄마 돌봄센터가 아쉽다. 짧지만 꼭 필요한 산소같은 시간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엄마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엄마산소 돌봄 센터를 운영하므로 교회가 도움을 준다면 교회내의 자녀들, 교회 주변의 젊은 이웃들이 짐을 나누는 삶을 나누게 될 것이다.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유아기 엄마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교회안의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의 꿈을 꾸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에게는 짐을 나누며, 자녀를 통한 보람과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구현에 헌신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자녀출산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부담을 국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자녀세대 구축을 모색하는 일, 또한 적극적으로 자녀출산을 위한 실제적인 일에 시간과 재정의 비중을 두고 실천하는 여유와 지원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글: 이연희 목사
(편집위원, 아미교회)



선교

저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글. 전영진, 엄미영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벌써 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이곳 생활에 익숙해 질만도 한데 여전히 닭갈비가 그리고 선선한 춘천의 날씨가 그리웁니다.

국가 이름인 인도네시아는 '인도양의 섬나라' 라는 뜻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만 6천 여 개의 섬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 6천만(세계 4위), 80% 이상이 이슬람(이슬람 인구 세계 1위)인 이곳에서 저희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어린이들을 전도하도록 사람들을 훈련하고, 어린이 전도자를 훈련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는 곳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현존하고는 있지만 전도가 가능한 상황을 찾아 비교적 어렵잖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은 '수라바야' 라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는 곳은 공부방입니다. 이슬람 단체에서도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지만, 지역의 교회나 기독교 계통의 단체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 쪽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연결되어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에 가입된 어린이들만 500여 명입니다. 대부분이 이슬람이고요. 이 공부방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훈련되어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요청이 있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이나 교육 내용이 좋기에 이슬람이나 타 종교의 배경을 가

지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이곳에 보냅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동역했던 한 유치원은 선교사님이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청소년 공부방을 비롯해서 4개의 공부방 아이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보통 아동부는 100여 명이 모이는데 이 중에는 약 30% 정도의 아이들이 이슬람이고 가끔씩 불교 또는 힌두교 배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이 유치원 건물은 전도 교사들 훈련을 위해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해주신 선배 선교사 내외분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이 소문이 나서 번두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전체 학생이 168명이고 이중 103명이 이슬람, 54명이 기독교, 나머지 한두 명씩 불교와 힌두교 등으로 종교 분포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인데 학교 정문 바로 앞 길 건너에는 모스크(이슬람 사원)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40여전 전 이곳에 한 선교사님이 학교를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날 저희들은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은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하여 저희들에게 강습회를 요청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2시간, 6주에 걸쳐서 강습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첫날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는 곳에 12명의 선생님 중에 유일한 이슬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저 사람 이슬람인데 괜찮겠냐고 합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와 앉아 있는 것이니 괜찮을 거라고 하고서는 잔뜩 긴장한 채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

을 배우는 첫 시간에 이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는 소식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듣고 열한 분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강의를 요청해서 6주간 섬긴 적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도록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님 닮은 겸손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에 와서 한국으로 취업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법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20여 명의 기독교청년들이 모였고 그중에는 이슬람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요구했을 때 기독교라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한다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모임에 참석한 이슬람 아가씨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한 달 뒤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에 얹혀살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저버릴 수 없어 이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전도자가 받는 상급은 잃어진 영혼 돌아올 때 하늘 기쁨에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저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듣고 받아들이며 감동하고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보며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하늘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저희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글. 민경원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



2019년 5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이수형 담임 목사를 비롯한 순복음춘천교회 단기선교팀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번 단기선교는 크게 디모데 선교센터 기공 감사예배, 한센병 환자 마을 및 빈민촌 전도, 희망의 학교 예배, 선교대회를 주축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2019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 외 10대부터 80대의 성도 32명과 타 교회 목사 2명(김성진 목사, 김호운 목사)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이번 단기선교팀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섬기는 9명의 선교사(캄보디아 김준수 선교사, 태국 김학봉 선교사, 대만 김성수 선교사, 필리핀 홍영기 선교사)와 가족들이 함께 하여 선교 현장의 비전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감동을 더하였다. 단기선교팀이 구성되면서 오리엔테이션, 팀별 공연 준비, 선교 강의, 기도, 총 리허설 등으로 하나 되어 방향을 세우고 열정으로 달려가는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

첫째 날(13일, 월) 오후 2시경 성도들의 환송 가운데 교회버스로 교회를 출발한 단기선교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마쳤다. 오후 9시 30분경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약 5시간 20분의 비행 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밤 11시경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캄보디아 김준수 선교사 가족과 미리 도착하신 태국 김학봉 선교사 가족 등의 마중으로 공항에서 가까운 숙소(Dywith Hotel)로 이동하여 간단한 모임을 마치고 여정을 풀어 휴식과 수면을 취하였다.

둘째 날(14일, 화) 아침 6시경 단기선교 동안 편성된 7개의 QT조별로 말씀 묵상과 나눔에 이어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 아침식사 후 디모데 선교센터 건축부지로 이동한 선교팀은 디모데 학사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캄보디아 학생들과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한 디모데 선교센터 기공 감사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기공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앙고백과 조돈산 장로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수형 담임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과 동역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다. 디모데 학사 학생들의 찬양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김준수 선교사의 인사와 김학봉 선교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수형 담임목사의 기공 선언으로 이어진 2부 기공식에서 김준수 선교사는 디모데 선교센터 건축을 위하여 순복음춘천교회와 미국 후원교회의 헌금으로 약 250평의 부지가 마련되고 건평 약 260평의 선교센터가 설계되어 하나님께 기공 감사예배를 드리게 됨을 보고하였다. 대만 김성수 선교사와 캄보디아 극동방송 설립자인 '삼은 인텔' 여사가 축사를 전하고 참석 내빈이 함께하는 테잎 커팅과 첫 삽 뜨기에 이어 단기선교팀의 축하 난타와 몸찬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오후에는 Killing Field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아픔의 역사 현장에서 숙연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되

새길 수 있었다. 디모데 학사를 돌아보고 학사 앞 빈공터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거리 전도를 펼치며 연휴 중인 캄보디아인들과 은혜를 나누었다. 저녁시간에는 호텔 세미나실에서 이수형 담임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태국 김학봉 선교사와 대만 김성수 선교사의 선교 비전과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선교대회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15일, 수) 아침 QT로 영의 양식을 채운 선교팀은 서둘러 버스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꼬뽁잠 지역으로 향하였다. 김준수 선교사가 협력으로 섬기는 한센병환자 마을인 뜨렁마을의 갈릴리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후 5개 조로 나뉜 전도팀은 디모데 학사 학생들과 마을을 돌며 크메르어로 작성한 사영리 전도지를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전하였다. 비록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모든 선교팀원들이 무더움을 이길 수 있었다. 교회 앞마당에서는 임해경 집사의 헌신으로 이발 봉사가 있었으며 마을 전도를 마친 단기선교팀들과 마을 주민이 간단한 식사와 옷가지를 나누었다. 프놈펜으로 돌아와 저녁에 이어진 선교대회에서 필리핀 홍영기 선교사, 캄보디아 박수연 선교사, 김호운 목사(충주순복음교회), 김성진 목사(단양순복음교회)의 선교비전과 사역 현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다.

넷째 날(16일, 목) 경건 기도로 시작하여 오전에는 빈민촌인 언동마을에서 각 조별로 호별 방문하며 크메르어 전도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시장 어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이발봉사로 사랑을 나누었다. 호별 방문 전도를 마치고 시장터 2층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동과 몸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오후에는 김준수 선교사 사택에서 고은영 선교사가 섬기는 재봉 사역(현지인 재봉 훈련, 제작 및 판매)을 돌아보고 제품 구매로 섬겼다. 저녁 시간에 이어진 선교대회에서는 경배 찬양과 조별 장기자랑으로 웃음과 감사를 더하고 조별 선교팀원들의 간증들을 나누었다. 축복의 시간으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축복하고 담임목사를 축복하며 팀원들을 서로 축복하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으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다섯째 날(17일, 금) 조별 QT로 하루를 연 단기선교팀은 아침식사 후 '희망의 학교' (Hope School at Cambodia)에서 학생 300여 명과 함께 김준수 선교사의 찬양 인도와 선교팀의 몸찬양으로 경배를 드리고 김호운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준비한 빵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학교를 돌아보며 '희망의 학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희망의 학교'는 프놈펜에서 최대 빈민가인 언동마을에 임만호 선교사 가정에서 2004년에 세운 학교로 현재 400여 명의 빈민촌 아이들이 꿈을 키워

가고 있다. 사랑하는 맏아들 '요한'을 교통사고로 잃고 과민성병으로 절망과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임만호 선교사의 사랑은 진한 감동으로 선교팀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프놈펜 시내로 나온 선교팀은 현지체험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조별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메콩강의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감상하며 디모데 학사 학생들과 함께 열을 올린 조별 '아큐' 게임은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밤의 분위기를 뜨겁게 하였다.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과 꿈을 간직한 선교팀은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태국으로 떠나는 김학봉 선교사 가족과 헤어지고 캄보디아 김준수 선교사 가족들의 아쉬운 환송을 받으며 출국 수속을 밟아 밤 12시경 프놈펜 공항을 이륙하여 토요일 아침 7시 30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하였다.

여섯째 날(17일, 토) 짧은 잠에서 깨어나 인천공항에 입국한 선교팀은 교회 버스에 올라 춘천으로 향하였다. 토요일 아침이라 춘천행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춘천에 도착하여 아침식사 후 교회로 돌아와 기도로 정리하고 선교팀 각자의 보급자리로 돌아갔다.

46명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2019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선교 목적과 비전에 따라 다듬어져 은혜로운 선교팀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단기선교 기간 중 선교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더운 시기에도 구름기둥과 소나기로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선교팀을 기도하시며 지도하시고 캄보디아에서 귀한 말씀과 사역을 이끄신 담임목사님, 선교현장의 사역의 바쁜 일정에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신 김준수 선교사님 내외분, 이번 단기선교팀에 합류하시어 태국 김학봉 선교사님 가족, 대만 김성수 선교사님 내외분, 필리핀 홍영기 선교사님, 단양 김성진 목사님, 충주 김호운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무뎠고 지치는 환경에서도 묵묵히 맡겨진 사역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준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작은 선교대회를 겸하며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선교와 함께 섬김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낸 받은 선교팀이 받은 감동과 비전을 나누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섬기는 전 성도들의 단기선교사역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며 성도들이 훈련되어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협력 가운데 헌신하며 선교에 앞장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꾼 저란"

칼럼

교회와 장애인



글. 변춘자 전도사
(전국장애인교회학교
자문위원, 춘천평안교회)

하나님께서
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인

간과 교제를 하셨다.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대가조차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대상에는 차별이 없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가?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셨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물론 육체적, 기능적인 장애인만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적, 정신적인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교회에 등록되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아무런 부담이나 제약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진다. 교회의 건축물을 비롯한 청각, 시각, 지체 및 발달장애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인식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에 대해 이제 교회가 가치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종합적인 섬김의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시작은 환영하는 것부터이다. 마음에 편견 없이 팔 벌려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것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장애인이 있는가? 성도의 가정에 장애인이 주일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장애유형별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역 단체와 봉사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하는 말씀의 실천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 모임 가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반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강칼럼

난 오늘도 쑥뜸을 뜬다

글. 한상술 권사 (오형쑥뜸방, 은누리교회)

쑥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떡이나 국에 넣는 식용으로, 뜬이나 한약재의 약용으로 귀하게 쓰여왔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일구이침삼약”(一灸二鍼三藥: 침과 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뜬을 떠서 치료하라.)라고 하였고, 중국의 맹자 이두편에는 “칠년지병구삼년지애”(七年之病求三年之艾: 칠년간 앓는 병 즉, 오래된 질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하여 써야 한다고 했다.

쑥뜸은 우리 인체의 따뜻한 기운인 양기를 복돋아주어 기혈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며 살균, 소염작용을 하여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 항체형성 세포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며 자가 치유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요법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인체의 생명활동을 지탱해주는 기와 혈은 경락을 따라 순환하면서 각 장기와 기관에 필요한 것을 보충시켜주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자궁이 냉하면 생리불순, 난임, 불임,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쑥뜸과 좌훈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며 임신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1977년 지역사회 1차 보건 의료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 쑥뜸은 면역학적으로 생체의 항체 면역기능을 증진케 하는 작용에 의해 각종 세균성 질환에 멸균, 소염효과가 있다.
- 쑥뜸은 신경성 질환에 대하여 항마비가 효과가 있고 경련성 질환에 대하여 진정 효과가 있으며 자율신경계 통에도 조정 작용이 있다.
- 쑥뜸은 심장 맥관계의 혈관운동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고 혈액 성분의 조정 및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 쑥뜸은 내분비 이상 질환 및 체액 대사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쑥뜸은 건강과 미용에 유익하여 지금도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쑥뜸을 뜬다. 건강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늙어서 평안히 천국을 가기 위해.





강원도 3·1독립운동과 기독교회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강원지역 기독교회의 3·1독립운동 참여

1919년 강원도 21개 군에서 기독교인들이 3·1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은 철원을 비롯하여 인제, 홍천, 횡성, 양양, 통천, 강릉 등이었다.

철원에서는 철원감리교회 목사 박연서를 비롯하여 교회 목사와 연결된 박용철과 철원 청년회 회원 이규정, 관전리 전도사 박진근, 그리고 홍인식·이소회·임용림·이규정·송의선·윤상식·조덕행·이각경·김경순·김씨 등 많은 청년들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특히 체포된 18명 중에는 김경순·이각경·박진근·이소회·김씨 등 6명의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제에서는 서병선이 홍천감리교회 원익상 목사의 소개로 춘천감리교회 이병찬 목사로부터 독립선언서 수매를 받아서 만세운동을 했고 홍천에서는 신장대리 기독교인 차봉철이, 횡성에서는 정해경과 탁영제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양양에서는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양양면사무소 급사인 김필선이 양양감리교회 청년인 김재구·김규용·김계호·김주호·김봉운 등과 협력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양양군내의 감리교회에 많은 청년을 포섭하여 활발히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조영순(趙英淳) 전도사의 딸인 조화벽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물치감리교회의 전달원·김두영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통천에서는 통천감리교회의 최상린·김두만·안홍식·우낙영·박성준과 원산 3·1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목사 유시국과 그의 부인 박마리아 그리고 강오규가 적극 가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주민을 계몽하였고 강릉에서는 안정록 목사가 만세운동 계획을 주도하였다.

이에 철원감리교회를 비롯하여 홍천·횡성·양양·물치·통천·강릉중앙감리교회, 더 나아가 춘천중앙감리교회 등의 여러 교회가 만세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원교회와 양양교회 기독교인들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알아본다.

철원감리교회의 강원도 첫 만세운동 주도

1919년 3월 7일 기독교도측 청년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모의하였다. 감리교회 목사 박연서



철원감리교회(1923)

가 기독교인 학생·교사·전도사들에게 시국정보를 제공하였다. 교회 목사와 연결된 박용철과 철원 청년회 회원 이규정이 학생과 교

회 그리고 청년들과 연락하여 함께 만세시위를 추진하

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10일 오후 3시 경 북간산에 집결하여 약 250명의 군중과 함께 서문거리로 진출, 만세시위를 펼쳤다.

일반 군중의 시위는 기독교의 경우, 관전리 전도사 박진근, 정의학교 교사인 중리 엄재형·김경순, 율이리 이각경, 중리 조덕행·이소회 등이 앞장섰다. 이배근과 관전리 이학수, 월하리 박창근·윤상식, 그리고 요리의 송의선 등이 주동하였다.

교회와 청년들은 오후 4시경 각기 나뉘어 주민을 동원했다. 약 500명의 군중이 철원을 누비고 철원군청으로 모였다. 철원헌병분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던 250명의 군중은 엄재형의 선두 지휘로 군청으로 몰려갔다.

군청 안에 모인 군중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윤상식·이배근이 군청 안에서 깃대를 찾아서 태극기를 달아 가지고 나와 현관 앞에서 휘두르면서 시위를 격화시켰다. 헌병분견대를 거쳐 온 학생 시위대도 가세하였다. 군중의 요구로 전 철원면장 이석영의 아들 이학수가 태극기를 받아 휘두르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저녁 때 일부 군중은 귀가하였으나, 나머지 군중은 김경순·이각경·이규정·이배근·송의선·박진근·박창근 등의 지휘로 월하리 박의병(朴義秉) 집으로 향했다. 군중은 한성관운을 역임한 친일파로 이완용과 가까운 박의병에게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송의선이 박의병을 문밖으로 끌어내자, 군중은 박의병을 협박하여 만세를 부르게 하고 다리까지 끌고 갔다.

3월 11일 아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군중이 서문거리에 모였다. 홍인식·이소회·임용림·이규정·송의선·윤상식·조덕행·이각경·김경순·김씨 등은 약 700명 군중과 함께 철원역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만세 부르고 기차 안 승객들도 호응하였다.

군중들은 다시 읍내로 향했다. 농업학교·보통학교 학생들이 합세하였다. 헌병 5명이 길을 막고 제지하였으나 계속 행진하였다. 서문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마헌병 등이 제지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대열은 흩어지고 군경에 의해 18명이 체포되었다. 김경순·이각경·박진근·이소회·김씨 등 6명의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된 철원군 만세운동은 강원도내에서 최초인 3월 10일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11일·12일·18일에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4월 8일의 운동을 끝으로 표면상 잠잠해졌다.

3·1독립운동과 민족구국제단 양양감리교회

양양에서의 만세운동은 강원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3·1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한데다 인원도 약 15,000명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양양감리교회는 이 항일

운동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해 4월 초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양양군내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만세운동이 있기까지 태극기 제작과 독립운동서 등사를 비롯한 제반준비에 헌신한 인물들이 양양교회 청년지도자들이었다.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개성 호수돈학교 학생)이 조직에게 입수한 독립선언서를 개성에서 양양까지 버선목에 숨겨 당시 교회의 청년지도자 김필선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당시 양양면사무소 직원이었던 그에게 필경과 등사의 책임을 맡기고 태극기 제작은 김주호에게 맡겼다. 대량인테라 복잡하기까지 한 태극기 제작과정을 감당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이들은 인적이 드문 교회 뒷산 상여를 집을 택하여 제작하였으며, 그곳을 거사의 모의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양교회 청년들은 그곳에 숨어 태극기를 무려 370장이나 제작하였고 거사 당일 일반인들에게 긴밀하게 협조하여 양양초등학교가 위치한 구교리 고개에서 주민들에게 숨어서 배부했다.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이 강원도 장관에게 보고한 전문 중 “야수교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일당이 읍내로 진입한다”고 한 내용은 이곳 만세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양양교회 성도가 담당하였음을 입증한다.

한편,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 양양감리교회를 담임한 김영학 목사는 양양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어서 독립을 위한 비밀조직인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일명 철원애국단)의 활동을 하다가 1920년 1월 철원애국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피체되어 동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감 후 1922년 시베리아 선교사를 자원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사업 및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가 1929년 소련 공산당에 피체되어 10년의 중노동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에 복역 중 1933년 옥중에서 별세했다.

강원도에서의 3·1독립운동은 종교 간의 반목이 불식 해소되고 독립을 위해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방 청년회의 활동에 모든 종교가 망라되어 민족운동을 모색하였다. 식민지정책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 다방면에서 일어났고 민족운동을 보다 전진시켜, 이후 강원도에서는 남궁억 선생의 제자들이 독서회 등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을 하는 등 독립을 위한 다양한 몸부림이 전개되었다



김영학 목사
(3·1운동 때 양양교회 담임)



워드 바이 하트(Word by Heart)

(이지훈 디렉터와의 인터뷰)

대담: 이병철 목사 (부분부장 주향교회)



1. 워드 바이 하트(Word by Heart)를 소개해주세요.

각 민족에게 주신 언어와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갖고 나누는 말씀 사역이 바로 워드 바이 하트입니다. 예수전도단(YWAM)은 2014년까지 성령 사역에 주력하다가 2015년부터 말씀 사역에 중점을 두면서 균형을 이루는 사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민족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2009년에 한국 투어 집회를 하면서 동북아 시대의 한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는데, 그 실행 툴(tool)이 바로 워드 바이 하트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 부산, 제주에서 투어 세미나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전수를 위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교회에서 워드 바이 하트(Word by Hear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제가 30여 교회를 방문하고 세미나를 열면서 이미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워드 바이 하트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게 함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춘천 세미나에는 폴 칠더스(Paul Childers) 대표가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데, 워드 바이 하트를 제대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워드 바이 하트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이번 한 번의 세미나가 아니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도 교회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원안이라 믿기 때문에 저희는 워드 바이 하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용사를 키워 생명의 말씀이 더 놀랍게 선포되게 하고자 합니다.

3. 디렉터이신 이지훈선교사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2007년에 코나 열방대학에서 스태프, 동북아 DTS 교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워드 바이 하트(Word by Heart)를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삶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랬듯이 사역자들이 먼저 말씀 안에 머무는 사역을 하게 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감성적으로 전하는데 탁월한 워드 바이 하트(Word by Heart)가 한국교회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잘 소개하고 이것이 정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잘 접목이 되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ORD BY HEART

워드 바이 하트 세미나
in 춘천

PASS ON WORD OF GOD TO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의 말씀의 전수)

강사: 폴 칠더스 Paul Childers
열방대학(UofN) 하와이 코나 캠퍼스 책임자
Word By Heart 공동 설립자

**워드 바이 하트 세미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019년 7월 17일(수)-18일(목)
17일 9:30~15:30 (중식제공)
18일 9:30~12:30

장소: 주향교회 (강원도 춘천시 새청말길 5)
문의: 권혁준 간사 (010-9085-6590)

주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열방대학(UofN) 하와이 코나 캠퍼스 Word By Heart 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를 위한 기도

글. 최승숙 권사
(석사감리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엄마가 전도자가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어느 날 광명시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춘천에 도착하여 우리 집에 오시는 길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부축하며 도와주었다. 몸이 많이 아파 보이는 노인은 엄마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광명 집으로 가신지 일주일쯤 지나 엄마가 쓰러지셔서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 MRI로 뇌사진을 찍은 결과 악성뇌종양이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수술을 못할 정도라고 담당의사가 자녀들을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오빠와 동생은 마음 아파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오랫동안 엄마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야 했기 때문에, 담당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엄마는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다. 그날 엄마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는 말씀이었다. 나는 담당의사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엄마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담당의사는 더 이상 해 줄게 없다며 장비가 있는 큰 병원에서 ‘감마나이프’라는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면서도 희망이 없다고 했다. 큰 병원에서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으로 치료하면 90% 이상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방사선치료를 포기하고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했던 뇌수술을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후로 수술날짜를 잡았다. 나는 수술 전 3일간 온전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수술 전날에는 담임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뇌수술을 5

시간에 걸쳐 받게 되었고, 처음 쓰러지신 후 몸의 반이 마비가 되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던 엄마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다. 그 뒤 한 달 후 혈관에 붙어있던 제거하지 못했던 작은 뇌종양을 ‘감마나이프’ 방사선으로 치료 후 시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완치된 엄마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엄마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다. 그렇게 5년을 건강하게 사시던 중 엄마 집과 가까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역분들을 모시고 인천 대부도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엄마도 지인과 함께 갔다 오셨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뇌경색이 찾아왔다. 다행히 며칠을 치료받으니 좋아지셨다. 나는 엄마에게 이제 교회 안 나가시면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하게도 얼마 후 지역분들을 전도하며 섬기시는 그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하셨다. 그날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엄마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엄마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엄마 집에 틈나는 대로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엄마를 보살피 주셨다. 그러던 중 뇌경색이 한 번 더 찾아왔고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 담당의사 말씀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고칠 수 없고 벌써 중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다. 엄마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집 밖에 나가시면 집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고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엄마집 주변에 사는 오빠와 동생이 수시로 엄마를 돌봐 드렸는데 급기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엄마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

마를 빨리 큰 병원에 모시고 가면 사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마를 모시고 뇌수술 했던 큰 병원으로 갔다. 진료 후 일주일쯤 입원하여 척수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다. 수술 성공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치매라는 것이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랐다.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철야를 하며 엄마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고 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석사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어 예전의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다. 의사선생님도 천운이다.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이제는 엄마가 교회에 나가시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시고, 교회의 행사에도 기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신다. 더 놀라운 건 5년 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도가 된지도 모르는 83세의 엄마가 전도를 하신다는 것이다. “나 같으면 교회 나가겠다” 라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불교신자인 지인이 남편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걸 보고 엄마도 놀라셨다고 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 다니시는 한 가정을 교회로 전도하셨다. 엄마가 처음 교회에 나가셨을 때에 적은 인원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부흥해 많은 인원이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린다고 한다. 엄마는 교회의 산 증인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엄마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또한 이젠 기적이라며 놀라워하는 오빠의 가정과 동생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신학생 모집 안내

본 신학원은 성경의 본질이 희석되어 가는 시대에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마두원’ 목사님 신학이념을 계승하고자 설립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를 희망하는, 소명 받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학과	과정	응시자격
기초과정	8학기	- 고등학교 졸업 및 인정자 - 이와 동등한 자격인정자 - 교회등록 3년 이상, 수세자
전문과정	6학기	- 대학 및 동등한 자격 인정자 - 교회등록 3년 이상, 수세자

■ 모집기간 : 상시

■ 연락처 : (033) 254-3491, 010-2775-101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성경장로교회 신학원장 황진석 목사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91차 춘천모임

- ◆ 강사 : 조정훈 교수(아주대 통일연구소장)
- ◆ 일시 : 7월 15일(월) 오후 7시 15분

92차 춘천모임

- ◆ 강사 : 여주현목사(주빌리사무국장)
- ◆ 일시 : 8월 12일(월) 오후 7시 15분

◆ 장소 : 주향교회

◆ 문의 : 010-6254-3162

복음적 평화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깐

“낙태 방지를 위한 대안”

- 성윤리 교육과 성교육 (2019. 5 JESUS ARMY) -

글. 이명진 원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전체 낙태의 0.3% 미만인 강간과 근친간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다각적인 종합 대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낙태를 주장하는 기성세대 타락한 성문화 반성해야

낙태 합법화 주장과 일부 청소년들의 임신, 학생들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성윤리 의식 저하에서 찾아야 한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포르노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기성세대와 청소년, 어린 자녀들에게 음란물이 무방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만 보장받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저급한 거짓 인권사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윤리와 가정을 해체하고, 욕망을 욕망하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지는 패악한 사조를 은근히 즐기고 묵인한 결과이다. 낙태를 주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 기성세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독이 든 사과’

성교육과 피임교육은 성윤리를 바탕으로 나이와 시기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성윤

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남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에 대한 지식과 피임 등의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윤리가 항상 성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상 판단력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만18세가 되어야 성숙된다. 만약 그 시기 이전에 급진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부적절한 성적 유혹에 빠뜨리는 나쁜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성교육 표준안 잘 지켜지도록 감시해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일부 교사들이 청소년의 성행위와 임신이 정당하다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일탈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피해 입게 해서

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수년간 연구하여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학습기준을 정해 놓은 성교육 표준안을 잘 지키면서 교육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명의 존엄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윤리란 꼭 지켜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알려주는 것이다. 윤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타락과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몸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고 인류에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윤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 성교를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왜 자신의 성과 몸을 결혼을 위해 소중하게 가꾸고 간직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신뢰를 기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할 때까지 남녀가 서로의 성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성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계소식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
매월 정기에배 드려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회장 홍기종)에서는 복지기관 관계자와 사회복지사들이 매월 1회 순회 정기에배를 드리고 있다. 6월 예배는 6월 7일(금) 북부노인복지관(박재호 관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드려졌다. 이 날은 박재호 관장의 사회로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90차 춘천모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90차 춘천모임이 6월 10일(월) 저녁7:15에 평화한국(허문영 박사) 주관, 세이레평화기도회로 열렸다. 이날 말씀선포에는 김모세 선교사(평화한국)이 맡았고, 허문영 박사의 북한선교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병철 목사의 인도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회를 가졌다.

춘천홀리클럽 창립23주년 감사선교대회
강사 이호 목사

춘천홀리클럽(조정일 회장) 창립23주년 감사선교대회가 지난 6월 16일(주일) 저녁7:30에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이호 목사(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건국배경과 신앙에 따라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전대통령의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의 검증과 함께 선포했다.

춘천홀리클럽 정기순회예배 동성애와 차별금지 법안 세미나



춘천홀리클럽(조정일 장로) 정기순회예배가 지난 5월 26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성광교회(조용아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번 정기순회예배에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법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강사는 기정희 원장(베드로병원)이 맡아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상세히 전달해주었다.

춘천교경협의회 부흥성회 강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경찰 가족과 춘천 복음화를 위한 교경협의회(회장 김원중 목사) 부흥성회가 6월 23일(주일) 오후 7시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열렸다. 본 성회에서는 이병철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 강사로 초빙된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6.25 구국기도회 개최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심의섭 회장)에서는 제4회 6.25 구국기도회를 6월 23일(주일) 저녁 7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심성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초빙된 강사인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목사)의 말씀선포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춘천직장연합선교회 정기예배 드려

춘천직장연합선교회(회장 김희두 권사) 정기예배



가 지난 6월 25일(화) 정오에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드려졌다. 정기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오에 갖고 있는데, 이날은 인도네시아 엄미영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열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 이사회가 지난 6월 28일(금) 오전 7시에 광염교회에서 열렸다. 2019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위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헤민사랑의 집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 부설 헤민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 창립 16주년 기념예배가 5월 8일(수) 오전 10시30분 교회 본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성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에 75세 이상으로 구성된 60여명의 빌립보 찬양대가 '일어나 걸어라' 찬양이 있는 후, 이수형 목사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전도서 12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년의 행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어 고운가루 몸찬양단의 특별공연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가 있었다. 헤민사랑의 집 창립 때부터 대표로 섬기고 있는 조남진 원로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인사와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교역자들이 아버지 은혜를 불렀다. 2부는 교회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다. 헤민사랑의 집은 어르신들의 안식처이자 모범적인 노인복지기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형버스로 식당까지 직접 모셔오는 등 적극적인 봉사를 펼치고 있다. 점심식사 준비는 교회 구역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관공서, 기업체 직원이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헤민사랑의 집은 매일 식사시간 전 공연과 강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다. 색소폰, 기타 연주와 외부 초청 강사들의 웃음치료, 건강, 교양 특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 이발봉사를 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다.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59기 수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시대 모든 남성을 위한 최고의 힐링타임! 아버지의 진정한 자리를 되찾는 기회가 바로 두란노아버지학교이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는 춘천59기를 6월 1일(토)부터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에서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남편)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에 대한 주제 강의를 진행하였고, 수료생은 총 40명이다.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통큰통독학교 수료예배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학교를 지난 1월 20일 개설하여 17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5월 19일 수료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등 500여명이 등록하여 지금까지 통큰통독학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취재 / 사진. 이은정 사무국장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장소: 공간나눔(석주로 128 지하1층)
문의: 010-5541-6952

- 일 시 : 2019. 7. 20(토) 오후7시
- 장 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공연관람료 : R석 30,000원 S석 10,000원
- 문 의 : 춘천성시합창단
단무장 이기영(010-2529-6193)

[illegible]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교육 시스템 '엘 시스템'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시먼'이 이끄는 미국 '시마노프 오케스트라' 내한 특별 공연이 한울섬김교회와 춘천YWCA 공동 후원으로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섬재능나눔장학회 초청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한섬재능나눔장학회 소속 청소년들과의 협연으로 진행되며, 그들의 멘토 및 강원대학교 윈드체임버 오케스트라 단원이 찬조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엘 시스템' 오케스트라 교육 시스템과 연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청소년 음악교육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주요 인사, 학부모 및 다양한 성장 환경을 지닌 청소년을 초청하여 그들의 성장 스토리와 감동을 함께 나누는 '행복나눔' 콘서트로 진행한다.

기친을 김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과해목 과 원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윤민 권학자 권혜재
권헌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고
김금란 김금희 김도희 김두철 김태순 김효정 김은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선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삼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승희 김세환 김서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진 김운호
김순희 김지희 김영랑 김영열 김영수 김연실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배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종자 김정미 김점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은 김종숙 김종숙 김종익 김준현 김홍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은하 김태곤 김택자 김한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남숙 남궁자
남준석 남아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련 민병순 민병일 민병일 박 현 박복함 박건성
박귀향 박귀희 박귀하 박귀희 박도훈 박도희 박명식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림성양모교회
금산교회 나남침례교회 동신장로교회 사암의교회
시암장로교회 새촌천교회 석사강림교회 소양재침교회
신복음침례교회 신복음제일교회 신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성강림교회 이마교회 연암양모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천교회 은누리교회
우두강림교회 주안교회 주천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영광교회 춘천두봉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유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강림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김교회 화곡교회
염동교회 후평제일교회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캐러리 배드로선교센터 월드비전 설곡산기도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